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한 지역디자인 활성화 방안연구

A Study on the Design Strategy for activating regional design industry
by Gwangjoo Design Biennale



김남훈 (Kim, nam hoon)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김병욱 (Kim, Byung Uk)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이 논문은 200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본질과 시사점

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개념
2.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고찰

III. 문화접목을 통한 지역디자인 활성화 방안

1. 지역문화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 디자인비엔날레와 지역디자인 활성화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keyword)

Design Biennale, Culture, Regional Design

논문요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디자인코리아”를 비롯하여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와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총회(ICSID)” 등 디자인 관련 국제행사들이 개최되었으나, 디자인 관련 모든 분야와 장르를 통합한 디자인 전시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에서 최초이면서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보기드문 행사였다.

또한 이러한 국내의 디자인 관련 각종 전시행사들의 대부분이 산업을 표방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전시하는 형식에 치우친데 반하여,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아시아와 한국의 디자인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여 미래의 디자인 트렌드를 세계에 보여주었고, 결국은 광주광역시라는 지역이 앞으로는 세계 디자인의 발신기지가 되어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려면, 한국의 디자인 가치를 보다 체계화하여 세계의 디자인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담론을 창출해 낼 줄 아는 안목을 키워내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별 디자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역 디자인의 역량 강화는 지역 최초로 건립된 “광주디자인센터”와 향후 건립될 “아시아문화전당”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결국 이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하여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할 경우, 광주광역시가 세계 디자인의 첨단 발신기지가 되어 디자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역할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의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정체성 확보에 따른 지역디자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광주지역의 문화와 접목된 특화된 지역 디자인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International Design Event has been held in Korea, such as "Design Korea" biannual events, supervised by MOCIE(Korea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in 2000, ICOGRADA, in 2001, ICSID. Among them, "Gwangjoo Design Biennale" is the first design event that include the whole specific design genre-This never happened in the world, and was held in the provinces.

The most of Korean Design exhibitions have illustrated the national industrial power by displaying the real market products or visual works. But as the "Gwangjoo Design Biennale" showed the values and the visions of Asian and Korean design future,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Gwangju which has a role of a engines for the world design industry. There is its significance.

To take a continuous progress, it is needed urgently that the "Gwangjoo Design Biennale" has a vision of leading the world design trend by specifying Korean design values.

By this activity, it is important to make the program for activating regional design industry. The programe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for each specific design field that Gwangjoo has. This is needed for "GDC(Gwangjoo Design Center)-the first regional Design promotion facilities in Korea", and "ACC(Asia Culture Center)-on the construction in Gwangjoo".

If the "Gwangjoo Design Biennale" had the right position by successful biannual opening, Gwangjoo has had a strong role as a world design future engine and contributed to develop regional industry.

By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s aimed to make a plan as the strategy for activating specialized regional design industry related to regional culture by defining the role of "Gwangjoo Design Biennale" and making the vision of "Gwangjoo Design Biennale".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디자인 관련 국제행사들을 살펴보면 산업자원부에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디자인코리아"를 비롯하여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와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총회(ICSID)" 등이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 관련해서 모든 분야와 장르를 통합한 디자인비엔날레 성격의 행사는 2005년에 개최된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에서 최초이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보지드문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국내의 디자인 관련 크고 작은 행사들의 대부분이 산업을 표방한 디자인 결과물을 전시하는 "엑스포(Expo)"나 "페어(Fair)" 형식에 그쳤는데 반하여,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을 "산업"과 "문화"로 재해석하여 미래의 디자인트렌드를 보여주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를 10년간 주도하여 국제적으로 그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맞추어 그동안 산업으로만 해석되어지던 디자인이 문화와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한국과 아시아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하여 안정되게 자리매김을 할 경우, 광주광역시가 세계 디자인의 첨단 발신지가 되어 디자인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광주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와 접목된 디자인산업을 부흥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문화적 측면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디자인은 시대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와 같은 21세기 디자인시대를 맞아 세계의 디자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기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개념과 그 역할,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의

하여 보고, 그에 따라 광주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와 접목된 특화된 지역 디자인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본질과 시사점

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개념

문화산업은 최첨단산업과의 연계와 함께 각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큰 분야이며 이에 따라 세계 경쟁력이 있는 문화산업국은 자국의 특징지역에서 대부분의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21세기에 있어서 디자인은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저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감성적이고 풍요로운 문화적 측면이 중요하게 취급되어 지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디자인은 이 시대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와 같이 21세기 디자인시대를 맞아 예술과 문화의 도시인 광주광역시가 한국은 물론 세계의 디자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기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1994년에 설립되어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경험축적은 “디자인비엔날레” 창립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²⁾

이와 같은 시대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디자인을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최초로 건립된 “광주디자인센터” 등 디자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산업에 대한 인식 확대와 지역의 이미지 고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시, 국제학회, 이벤트 등이 총 망라된 세계 최초로 종합디자인 행사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창설, 개최하게 되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 디자인 발전에 기여할것이다.³⁾

이처럼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본 전제로 하여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광주디자인센터”와 향후 건립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과 보조를 같이하여, 세계의 디자인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디자인의 허브”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1세기가 요구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나감으로서 광주는 물론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 디자인의 가치를 선도함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1) 2005광주세계디자인비엔날레 창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04, pp10
- 2) 이순종,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가와 전망, (재)광주비엔날레, 2006, pp3
- 3)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평가보고서, (재)광주비엔날레, 2006, p.3

2.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고찰

2005년에 처음 창립되어 개최된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 관련한 모든 분야와 장르를 통합한 디자인비엔날레 성격의 행사로서는 지역에서 최초이면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행사였다는 점에서 국내외 디자인계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 모았다.

특히 2005년도 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아이덴티티(Identity) 및 프레임(Frame)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따라서 행사의 방향, 행사의 내용과 구조 등은 바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차별점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탄생하는 “제1회 2005광주디자인 비엔날레”는 행사의 개념을 문화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디자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고, 이에 주제를 “삶을 비추는 디자인(Light into Life)”으로 결정하였다.

“제1회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행사에는 총 33개국에서 700여 디자인선도기업 및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1300여점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숍에는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국제시각디자인단체협의회, 국제인테리어디자인단체협의회 전, 현회장을 포함하여 60여명의 국내외 디자인관련 석학들이 초대되었다.

관람객은 11월 3일 현재 29만으로 집계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비 100%를 초과하였고, 3일간의 국제학술회의는 2000명의 방청객이 자리하였다. 축제행사는 90회의 공연, 참여, 특별행사 등 각종 행사에 10만 명이 참여하였다. 4)

이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하여 21세기의 흐름을 디자인과 연계시켜 세계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였으며, 기존 디자인 행사의 일반적인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디자인과 삶을 연결시켜 재해석한 디자인비엔날레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준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광주광역시와 아시아 디자인의 메카로 부상하는 기회와 디자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또한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새롭게 발견된 광주와 아시아의 문화자산들은 우리의 문화역량을 한단계 높여서 “문화수도 광주”로서의 위상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준비기간이 짧고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전문가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끌어낸 점으로

볼 때, 향후 규모있는 국제행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과 유명디자이너들의 미래의 디자인 컨셉과 실험작들을 다양한 방법의 전시기획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서, 미래의 디자인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 점 역시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아시아디자인전”은 내용과 규모면에 있어서도 독창적인 전시회이었으며, “한국전”, “광주전” 역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시아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시를 통해서 미래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아시아문화디자인의 가치를 발신하는 선도적 위위를 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이순종,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가와 전망, (제)광주비엔날레, 2006, pp4-5



[그림 2]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관

III. 문화접목을 통한 지역디자인 활성화방안

1. 지역문화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전남지역은 전통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으로 “광주비엔날레”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화의 도시임을 천명하였다.

광주광역시에는 남도 고유의 예술적 전통과 문화유산 등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 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시, 공연, 박물관 등 문화수도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도심권에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문화컨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광주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⁵⁾

또한 광주광역시는 지역에서 최초로 건립된 “광주디자인센터”와 현재 건립 진행중인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하여 문화와 디자인산업의 인프라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환경속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디자인 흐름과 고급 국제디자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의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지역 디자인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의 붐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영자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간다면 이는 결국 지역 디자인산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문화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인 여러 요소들이 방대한 수요를 가져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한 지역 문화와 접목된 디자인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야 하겠다.

2. 디자인비엔날레와 지역디자인 활성화 방안

광주는 예향(藝鄉), 의향(義鄉), 미향(味鄉)이며 동시에 민주, 인권도시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하게 발신해 왔다. 최근엔 광주비엔날레의 안정과 함께 전자, 자동차, 광산업 등이 함께 성장하고 있어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병존하는 곳이다.

즉, 광주는 과거와 현재, 자유와 민주, 예술과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곳으로서 미래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지향점은 문화적 전통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분야의 디자인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디자인 이벤트들이 주로 디자인 ‘산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화 디자인’의 고부가가치성이 중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광주를 동북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건설하려는 것과, 함께 개최되는 예술 비엔날레와의 조화도 이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와 같이 광주의 새로운 문화도시 이미지와 문화 디자인을 접목하기 위해 ‘미래의 도시 광주-기원’ 프로젝트를 향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⁶⁾

이처럼 광주의 새로운 문화도시와 문화디자인이 접목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개최를 통하여 경제, 문화, 사회, 교육적인 측면의 다양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하여 광주지역의 디자인 산업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하여 지역의 생산업체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고급 디자인 인력을 흡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장기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광주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내재된 고유 브랜드의 상품들을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5) 2005광주세계디자인비엔날레 창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04, pp74

6) 박인석,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가와 전망, (제)광주비엔날레, 2006, pp13-14

IV. 결론

급성장하고 있는 디자인산업은 오늘날 지역발전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21세기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의 가속화, 고도화로 통신 방송의 융합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세계적 실현과 함께 디자인산업은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며,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에 높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21세기 문화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을 포함한 디자인 산업은 지역 개발의 주요 핵심수단으로서 지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⁷⁾

이처럼 21세기 문화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디자인 산업은 지역 개발의 주요 핵심 수단이며,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본 전제로 하여 창립 개척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광주디자인센터”와, 향후 건립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과 보조를 같이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나감으로서 세계디자인의 가치를 선도해 나가는 “디자인의 허브”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서 지역 디자인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축으로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중육성하는 모델로서 광주광역시 광산읍과 더불어 디자인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국내 지역최초로 지역디자인 진흥의 주체로서 디자인센터를 건립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역의 디자인 산업 기반이 취약한점과 이에따른 디자인산업 진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로서 세계최초의 종합디자인비엔날레를 기획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세계적 디자인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산업적 토대가 빈약한 지역적 한계를 지역의 내재된 강점을 기반으로 새롭게 디자인중심지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광주 세계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문화도시 광주의 지역 이미지 마케팅에 큰 견인차가 되었고, 향후 건립될 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발신지역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하는 세계 디자인의 물적/인적 교류의 중심지로 인식될 것이며,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독특한 디자인문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문화

디자인의 영역을 개척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발신지로서의 지역정체성 제고는 지식산업분야의 해외 및 국내 전문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한 네트워크를 적극활용한 지식산업 생산물의 홍보채널 활용, 또한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문화도시 조성계획과의 적극적 연동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21세기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한국의 디자인 가치를 체계화하여 세계의 디자인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담론을 창출해 낼 줄 아는 안목을 키워내는 것이 첫번째 할 일이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비엔날레로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다. 차별화된 디자인 가치의 재창조 기능을 지닌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신산업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에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지역 내 유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역 디자인산업의 개념은 지역의 특색과 차별화의 강화수단 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의 역량을 축적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브랜드 마케팅, 관광, 문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환경디자인, 대 내외 네트워크를 위한 글로벌화 등의 경제력 강화의 기폭제로 활용될 것이다.⁸⁾

이러한 지역의 디자인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정책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광주디자인센터의 선진 디자인마인드 제고와, 광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디자이너들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7) 광주지역혁신시스템(RIS)에 기반을 둔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모델 개발 및 발전전략, 한국디자인진흥원, 2004, pp39-40

8) 광주지역혁신시스템(RIS)에 기반을 둔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모델 개발 및 발전전략, 한국디자인진흥원, 2004, pp41

참고문헌

- 1)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04, pp10
- 2) 이순중,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가와 전망, (재)광주비엔날레, 2006, pp3
- 3)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가보고서, (재)광주비엔날레, 2006, pp3
- 4) 이순중,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가와 전망, (재)광주비엔날레, 2006, pp4-5
- 5)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04, pp74
- 6) 박인석,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가와 전망, (재)광주비엔날레, 2006, pp13-14
- 7) 광주지역혁신시스템(RIS)에 기반을 둔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모델개발 및 발전전략, 한국디자인진흥원, 2004, pp39-40
- 8) 광주지역혁신시스템(RIS)에 기반을 둔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모델개발 및 발전전략, 한국디자인진흥원, 2004, pp41